

AI·신재생에너지 육성...광주·전남 기대감 커간다

대선서 미래 차 도시 등 약속
석유화학 대전환 특별법 추진
공항 이전 등 숙원해결 청신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광주·전남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일 민주당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 기간 AI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기업·인력 등 핵심 인프라를 광주에 집중하는 것을 골자로 한 7대 광주 공약을 발표했다.

전국 곳곳에서 AI 인프라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연계 초거대 AI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약속하면서 광주가 국내 AI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I와 함께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미래 차 산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민주당은 광주를 AI와 모빌리티를 융합해 실증·구현하는 AIMO(AI·Mobility) 특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미래 차 부품산업과 자율주행 기술 등 연계 산업 생태계를 함께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숙원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가 주도로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과 서남권 관문 공항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해 지역 균형



강기정 광주시장(3일 시청 시민홀에서 시민들과 함께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을 보고 있다(왼쪽). 이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도청 윤선도를 복카페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제21대 대통령선거'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3일 시청 시민홀에서 시민들과 함께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을 보고 있다(왼쪽). 이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도청 윤선도를 복카페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제21대 대통령선거'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발전과 교통·물류 발전 가능성도 커졌다.

전남의 7대 핵심 공약 역시 여수국가산단 대전환과 신재생 허브 전남 건설 등 미래 100년을 위한 경제 정책에 중점을 뒀다.

민주당은 여수석유화학산업의 대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풍부한 바다와 농지를 이용해 공익형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해남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목포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전용 국가 그린산단을, 진도에는 공공수도 해상풍력 직접화 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영광에도 국가 차원의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 도시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지역 소멸 대응 등을 해나갈 방침이다.

미래 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해서도 고흥에 우

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함평에 미래모빌리티 특화산업단지와 그린바이오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해남에 솔라시도 글로벌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등을 공약했다.

전남의 전통적인 산업 기반인 농수축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남에 지역특화 첨단 농산업 플랫폼을 조성하고, 무안에 K-푸드 융복합산업단지와 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를 만드는 등 스마트 농수축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당선인이 AI 강국으로의 도약과 서해안 해상전력망 건설, RE100 산단 조성, 햇빛·바람 연금의 전국 확산 등을 직접 강조해온 만큼 빈 공약에 그치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경기 침체와 대내외적 불안감 해소 등의 과제를 떠안은 새 정부가 모든 산업에 예산을 쏟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원 마련 방안과 집중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근산·김용현 기자

이재명 승리 앞장선 광주·전남 인사들 주목

박지원·신정훈·민형배 등 활약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두각
강기정·김영록도 목소리 대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선 승리를 이끈 광주·전남 인사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지역 최다선인 5선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박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광주·전남 곳곳을 누비며 전국 최고 투표율을 이끌었다.

박 의원은 선거 프레임 제시부터 돌발성 사안마다 공격수를 자처하는 등 1인 다역을 소화해냈다. 82세의 고령임에도 쪽잠을 자며 이동거

리 1만1,814km, 유세 65회, 경정투어 121회, 방송 64회 출연 기록을 세웠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단에 전격 합류해 선거유세에 나선 것도 국민적 이목을 끌었다.

정 전 질병관리청장은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다”며 전 정부의 무능함과 불공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판단을 대변했다.

광주가 고향인 정 전 청장은 전남여고를 졸업했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유행 때 방역 행정을 진두지휘하며 국민적 신뢰를 쌓았다.

3선의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중앙선대위 조직본부장에 임명돼 민주당 전국 조직간 유기적 연계를 유지하는 중심 역할을 했다.

선거운동 기간 당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현장 민심을 중앙 전략에 정교하게 반영하도록 조율했다. 시·도의원 간담회는 중앙과 지역 조직과의 신뢰를 두텁게하고 결국 높은 사전투표율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재선인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은 K-이니셔티브 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했고, 임선숙 전 최고위원은 후보직수 기구인 배우자실장을 맡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종교단체와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며 ‘조용한 내조’에 힘을 실었다.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은 산업위기지역 살리기위원장,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실 수행실장, 조계원 의원(여수)은 체육위원장,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꿈사니증위원장, 김원이 의원(목포)은 미래전략산업육성 기획위원장, 조인

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K-통합사회위원장 역할을 담당했다.

지역 선대위도 ‘경정 선거운동’으로 골목골목을 누비며 유권자 한명 한명을 만나 투표장으로 이끌었다.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과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집중유세, 거리청소, 민원 접수 등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기초자치단체장들도 비상계엄과 탄핵과정에서 기민하게 대응한 뒤 조기 대선에 치러지자 투표 독려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김 지사는 대선 출마의 뜻을 중도에 접었으나, 비상계엄 후 정국이 요동칠 때마다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정근산 기자

투표율 광주 83.9%·전남 83.6%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광주·전남의 투표율이 전국 1위와 2위를 각각 기록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대선 투표율(잠정) 최종 집계에 따르면 광주는 83.9%로 전국 1위, 전남은 83.6%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제20대 대선 당시 광주 81.5%, 전남 81.1%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광주는 2.4%포인트, 전남은 2.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광주는 18대부터 21대까지 3번 연속 전국 투표율 1위를 차지했다.

광주 자치구별로는 남구가 84.6%로 5개 자치구 중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동구 84.0%, 북구 83.9%, 광산구 83.8% 순이었으며, 서구는 83.4%로 간발의 차이로 5개 자치구 중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

전남에서는 구례가 85.7%로 22개 시군 중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김용현 기자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일자리 중심 민생경제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도시 광주 복구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 *신중년 일자리창출 지원
- *일자리 매칭데이 운영
- *복구취업정보센터 운영
-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지원

내 일(JOB)로 내일(TOMORROW)을 도약하는 행복 복구



광주광역시 복구